

2월 19일 뉴스 종합 정리

2009년 2월 19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7

chlee@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뉴욕증시 혼조세..다우 0.04%↑ [다우: 7555.39 (+0.04%)	뉴욕증시가 18일 등락을 거듭한 끝에 혼조세로 마감. 경기관련, 호재와 악재성 재료들이 쏟아진 가운데 투자자들이 뚜렷한 갈피를 잡지 못한 채 혼조세로 장을 마침. 뉴욕증시는 장초반엔 약세를 보였고 개장 전후 예상치를 크게 밑돈 부진한 경기지표들이 발표되면서 냉각된 투자심리와 함께 하락. 그러나 낙폭과대 인식이 퍼지면서 반발매수세가 조금씩 유입됐고, 오바마 대통령이 2,750억달러 규모의 주택시장안정대책을 발표하자 반등을 시도. 하지만 장막판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올 미국의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을 0.5~1.3%로 내려잡고, 실업률은 8.5~8.8%로 대폭 상향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혼조세가 지속.
오바마 2,750억불 주택 시장안정책 발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총 2,750억달러 규모의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 주택차압을 진정시켜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 지원자금은 주택차압 해소를 위한 보조금과 인센티브에 750억달러를 지원하고, 우선주 매입방식으로 국영 모기지업체에 2,000억달러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함.
경기지표 부진..리세션 심화 다시 확인	개장 전 상무부가 발표한 1월 주택착공 건수는 연율 46만6,000채(계절조정)로 전월 대비 16.8%나 감소. 시장 전망치(마켓워치 집계)인 52만 5,000채를 크게 하회할 뿐만 아니라, 1959년 집계 시작된 이래 가장 적은 규모. 건축 허가건수도 전월대비 4.8% 감소한 52만1,000채를 기록했고, 단독주택 허가건수 역시 8% 줄어든 33만5,000채를 나타냄. 이들 모두 사상 최저치를 기록. 개장 후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가 발표한 1월 산업생산은 1.8% 감소. 전월(-2.4%)보다는 완화됐지만 블룸버그통신이 집계한 시장의 컨센서스(-1.5%)보다는 악화된 수치.
연준 올 경기전망 하향 조정..실업률은 8.8%로 올려잡아	美 연준이 이날 공개한 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 따르면 연준은 올해 미국의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을 마이너스 0.5~1.3%로 하향 조정함. 연준은 당초 올해 GDP 성장률을 0.2~1.1% 수준으로 내다봄. 또한 올해 실업률도 당초 예상치인 7.1~7.6%보다 높은 8.5~8.8%까지 치솟을 것으로 수정.
국제유가 하락..배럴당 34弗 [WTI: \$34.62 (-\$0.31)	국제유가가 전세계 경기 침체로 인한 원유 수요 감소 우려와 미국의 지난주 원유 재고량이 또 다시 증가하면서 10년래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하락. 국제유가는 작년 7월 배럴당 147달러를 기록한 이후 글로벌 리세션 심화에 따른 수요부진 여파로 급락세를 지속해옴.

제목	주요 내용
'동(東)유럽발 금융한파'	루마니아·폴란드·체코 등이 국가부도 위기에 몰리면서 동유럽발(發) '2차 글로벌 금융쇼크' 가능성에 대한 불안이 확산. 이 때문에 지난해 11월 말 이후 다소 진정세를 보였던 국제 금융시장이 다시 불안.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인들이 다시 주식을 팔면서 주가가 내려가고 환율이 급등하는 등 금융불안이 재발하는 양상을 보임.
EU집행위, 佛등 6개국 재정적자 경고	경제위기 타개를 위해 각국이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가운데 프랑스, 아일랜드 등 6개 유럽연합(EU) 회원국이 재정적자 확대에 대해 경고를 받음. EU 집행위원회는 18일 프랑스와 아일랜드, 스페인, 그리스, 라트비아, 몰타 등 6개국의 올해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 3%를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힘.
日, 오일머니 유치 노력.. "중동 국부펀드는 이자소득 비과세"	금융 위기로 전 세계 투자환경이 열악한 가운데 일본이 중동의 오일머니 유치에 노력. 19일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중동의 자원부국들이 설립한 국부펀드(SWF)가 일본의 국채나 예금 등에 투자했을 때 이자소득을 비과세로 하기로 함. 이는 중동 국가들의 국부펀드는 최고의 기관투자자로 꼽히고 있어 일본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를 꾸준히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고정 고객으로 삼겠다는 것으로 풀이.
환율 치솟자 환전. 송금 급증	1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개인이 외환은행을 통해 해외은행으로 송금한 실적은 6,683건, 1,329만달러로 전날보다 각각 4,022건, 408만달러 급증. 건수와 금액 모두 월중 최대 규모이며, 환율이 1,380 원대에서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이던 지난 6일에 비해서는 3,900건, 561만달러 증가했음.
코스피 사흘째 하락	동유럽 관련 금융위기가 부각된데다 일본이 기대 이하의 경제지표를 발표하는 등 글로벌 경기침체 위기가 확산되며 시장 분위기를 어렵게 했음. 또한 어제 미국증시의 주요지수가 경기 후퇴 우려와 금융불안감에 3~4% 이상 급락한 것이 부담이 됐던 상황. 특히 장 막판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7,870억달러 규모 경기부양법안에 서명했다는 소식도 급락을 저지하지 못해 경기부양안 실효성에 대한 우려마저 제기됐었음.
셀트리온 급등..코스닥 시총 1위 등극	셀트리온이 코스닥 시가총액 1위로 뛰어올랐음. 시가총액은 1조4,799억 원으로 늘었다. 반면 태웅은 전날 7%대 급락에 이어 이날 1.26% 하락하며 시가총액이 1조4,268억 원으로 줄었음. 현재 셀트리온은 닷새째 이어지는 기관의 순매수 덕분에 주가지수 급락에도 강세를 유지하고 있음.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